



이 자 영 | EDAM 공간연구소 실장
(lly3331@hanmail.net)

술과 강의 풍경

소주 한잔을 벌컥 들이켜도, 술의 그 쓴맛이 쓰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날이 있다. 아무리 술이 쓰다 한들, 마음속 깊숙한 데 자리한 나의 시름과 번뇌만 하겠는가. 그래도 술은 술. 술에서 깨고 나면 비로소, 내 장기에 상처가 났음을 느낀다. 그리고 장기들의 아우성을 들으며, 나는 오늘도,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 추웠던 칼바람과 유난했던 매서운 한파도 이제 서서히 힘이 빠지는 듯하다. 자연의 순리대로 겨울이 또 가고 저 멀리 봄이 오고 있음을, 보이지 않지만 느낀다. 하지만, 우리네 인생살이는 여전히 척박하다. 물론 내가 굶거나 헐벗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우리 사회 어딘가에는 오늘도 가난과 외로움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기에, 이 세상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못한 듯하다. 모두가 행복해야 비로소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행복의 조건을 가혹하게 정한 것인가? 그러나 문득 내 인생도 돌아보면, 늘 봄만은 아닌 것을... 행복하게 견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보면 지금 가시밭길이다.

행복은 어디일까? 특별한 사건사고가 없다 해도, 내 인생 그럭저럭 순탄한 듯 보여도, 나의 영혼이 어디서 왔으며, 왜 여기에 지금 이 시간에 있는지를 생각하노라면, 사색의 구렁이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블랙홀 같은 구렁이는 점점 깊어지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다. 그 답을 알기 전에는, 완전함을 느낄 수 없으리라... 나는 지금 이 우주에서 어디쯤을 흘러가고 있는 걸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도, 이 사색의 구



여수 구시가지에 위치한 연등천과 여수시장



강과 나란히 들어선 여수시정(사진의 오른쪽)

덩이에서는 혼자일 뿐이다. 결국 인생은 '더불어 홀로 걷는 여행'이다. 이럴 때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무언가는, 한잔의 술. 흥청망청 어지러이 마시는 술이 아닌, 혼자서 또는 삼삼오오 벗들과 오붓하게 마시는 한잔의 술. 오늘은 스산한 겨울의 끝자락을 잡으며, 운치 있게 한잔 술이 있는 강의 풍경 속으로 헤엄쳐 가보자.

여수 연등천을 찾아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는 많은 포구들이 있다. 포구들마다 얼마나 많은 사연을 지녔을까. 임진왜란 때는 왜적을 받아내느라고, 일제시대 때는 수탈당한 쌀과 물자를 내어주느라고, 포구들은 몸살을 앓으며 버텼을 것이다. 또 포구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 수많은 인생들과 사연들... 그래서 포구는 사

람들로 활기가 넘치면서도, 동시에 씁쓸하다. 그러한 인문학적 사유가 포구에서 나는 특유의 짝조름한 냄새들과 겹쳐 오버레이 되면서, 괜히 또 나는 망상의 바다에 빠진다.

그 많고 많은 포구 중에서도 여수는 단연 독특하다. 연등천이라는 폭이 넓지 않은 하천이 여수를 그대로 관통하면서 항구에 닿아 바다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강이 바다로 드나드는 그 나들목 옆으로, 강을 따라 길게 시장이 켜졌다. 바로 여수시장이자. 그리고 이 여수시장은 서시장, 교통시장 등 별개의 시장들이 계속 이어져 있다.

시장에는 없는 게 없다. 바다도시에 맞게, 수산물과 각종 건어물은 물론이요, 야채와 고기, 튀김과 국밥까지, 없는 게 없다. 꼬부랑 할머니들, 진한 화장의 50대 아주머니, 새까만 피부의 아저씨에서 새댁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물건을 팔고 산다.





시장 안에 들어서면 냄새는 꼬리꼬리해도 의외로 정돈되어 있다. 물건들을 바지런하게 정리한 솜씨에서는 전문가의 맵시가 느껴질 정도이다. 상인은 그 물건이 최고로 돈보이게 하는 진열법을 스스로 알고 있다. 최고의 마켓디스플레이 디자이너가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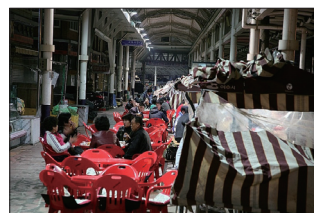
시장에선 굳이 사지 않아도 된다.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만 해도 흥이 나는 곳이다.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어른들에게 눈으로 배를 채우는 곳이자, 고향 같은 곳일테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이곳만의 명물이 있다. 위의 사진에서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처음 이것을 본 사람들은 저게 뭘까 싶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건 바로 이것이다!



알록달록 경쾌한 표정의 저놈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절로 웃음이 난다. 바로 상인들의 보물창고이자 냉동창고이다.

수시로 입을 열었다 닫으면서, 상인들 너머로 줄지어 몇백 미터를 서있는데, 꼭 할머니의 귀여운 손자 같기도 하다. 유쾌하다. 저걸 보면서, 환경디자이너로서 반성이 되었던 것은, 내가 너무 디자인에 매사 힘을 주려고 하진 않았나 하는 점이다. 촌스러운 것, 유치한 것을 극도로 혐오하면서, 심플함과 단조로움을 최상으로 하는 미니멀리즘에 빠져, 나도 모르게 내가 유치하게 디자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반성이다. 사람들을 웃게 하는 디자인은 좋은 디자인이다. 힐링이 따로 있지 않은데 말이다. 웃음과 배포를 가져봐야겠다.

구불구불 미로 같은 교동시장과 가지런한 서시장 등이 여수의 시장들이 흥겨운 것은 분명, 바다와 강 옆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이 한몫하고 있을 것이다. 갈매기들은 먹이를 찾아 쉬새 없이 소리치며 강과 시장 주변을 날아다니고 있으며, 물에는 배가 두둥실 떠있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이 여수시장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밤에 있다.



어둠이 내려와 하늘의 경계와 바다의 경계가 검은색으로 합하여 질 때 즈음이면 시장은 '이상한 나라의 포장마차 도시' 같다. 낮의 풍경과 밤의 풍경이 너무나 다르니 말이다. 강을 따라 바지런하게 늘어선 포장마차에서 새어나온 불

빛은 지나가는 사람의 호기심과 발목을 붙잡기 충분하다. 안주는 당연히 시장에서 갓 썰어 나온 회와 야채이다. 바다와 강물 흐르는 소리에 갈매기 소리에 흥이 더해지고, 자동차 소리



와 뱃소리가 들리면 내가 항구도시에 와있구나 싶다. 맛있는 안주와 술, 즐거운 술손님들과 함께 있으면, 시장특유의 꼬리한 냄새마저 정겹다. 내가 있고, 공중엔 이야기들이 떠다닐 뿐이다. 그리고 이런 장소에서 정말 잘 어울리는

애주가에게 술 마시는 핑계를 이토록 멋스럽게 붙여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하늘이 술을 사랑해서 주성(별자리의 이름을 뜻하는 듯)이 있고, 땅이 술을 사랑해서 주천(중국에 주천이라는 지역이 있다. 실크로드 때 번성했던 도시로, 술샘이 있다고 전해진다.)이 있는데, 하늘과 땅이 사랑하는 술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겠는가. 또 성현이 즐겼는데, 어떡냐고 반문하는가 하면, 마지막 마무리에서는 술을 마시는 일이 자연과 합일하는 일이라고 큰소리 치고 있다.

여수에는 정말 볼거리가 넘친다. 진남관과 향일암도 있고, 거문도 백도도 있고 엑스포도 있다. 하지만 여수시장 포장마차에서 회를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여수를 반만 여행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인간이 손대지 않은 신비로운 강의 풍경도 좋지만, 인간냄새 폴폴 나는 시장이 있는 강의 풍경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를, 사색이 필요한 사람은 사색을, 웃음이 필요한 사람은 웃음을, 그냥 물건이 필요한 사람은 물건을 얻어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추운 겨울을 잘 참고 지내온 우리 모두를 위하여, 건배!를 외치며 글을 마친다. 🍷

이백의 시가 있으니, 잠시 품 좀 잡아 보자.

天若不愛酒 천약불애주	하늘이 만일 술을 즐기지 않았다면
酒星不在天 주성부재천	어찌 하늘에 주성이 있으며
地若不愛酒 지약불애주	땅이 또한 술을 즐기지 않으면
地應無酒泉 지응무주천	어찌 주천이 있으리요
天地既愛酒 천지기애주	천지가 하냥 즐기었거늘
愛酒不傀天 애주불괴천	술을 좋아함을 어찌 부끄러워하리

已聞清比聖 이문청비성	맑은 술은 聖人에 비하고
復道濁如賢 복도탁여현	흐린 술은 또한 賢人에 비하였으니
聖賢既已飲 성현개이음	성현도 이미 마셨던 것을
河必求神仙 하필구신선	헛되이 신선을 구하는가

三盃通大道 삼배통대도	석잔술은 大道에 통하고
一斗合自然 일두합자연	한말 술은 自然과 합일하니
俱得醉中趣 구득취중취	모두 취하여 얻는 즐거움을
物謂醒者傳 물위성자전	개인 사람에게 이르지 말라



바다와 만나는 연등전